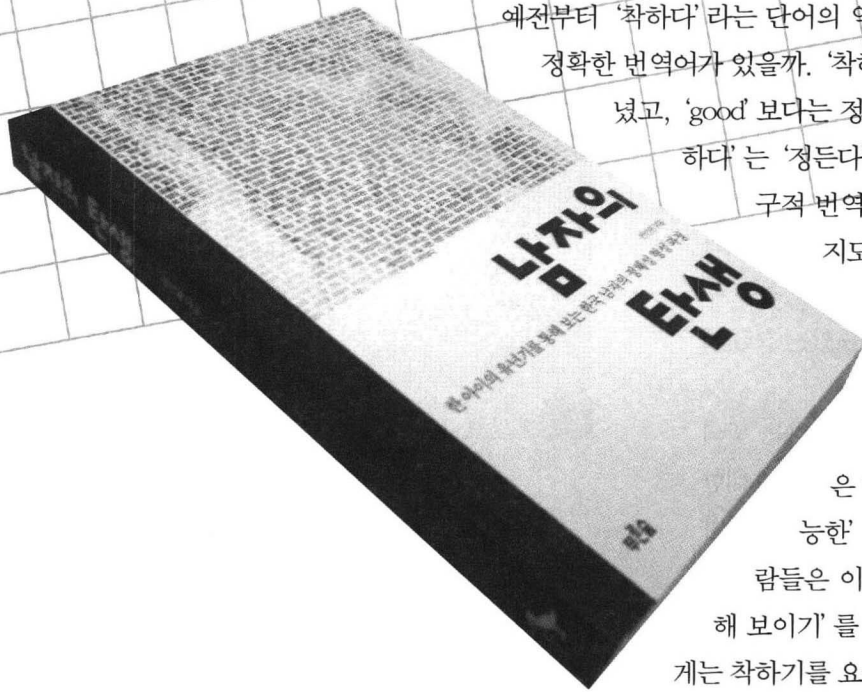


전인권의 《남자의 탄생》

내밀한 자전적 기록으로 일구어낸 공적인 정치적 탐구

글_ 정여울



예전부터 '착하다' 라는 단어의 역사가 궁금했다. '착하다' 라는 말에 대한 정확한 번역어가 있을까. '착하다' 는 'nice' 보다는 암전한 뉘앙스를 지녔고, 'good' 보다는 정치적이고 인격적인 분위기를 지닌다. '착하다' 는 '정든다', '한스럽다', '민망하다' 처럼 정확한 서구적 번역어가 없는, 한국적 특수성을 지닌 어휘인 지도 모르겠다. '착하다' 는 한국인들이 사람의 성격을 평가하는 가장 보편적인 형용사다. 이 말은 자본주의가 가속화될수록 점점 사람들의 냉대를 받게 될 것 같다. 착한 사윗감, 착한 며느릿감은 한때 최고의 결혼 상대였으나 이제는 '유능한' 배우자가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착함을 진심으로 추구하기보다는 '착해 보이기' 를 가르치고 배우며 자라는 것 같다. 타인에게는 착하기를 요구하지만 정작 자신이 '착하다' 는 평가를 들으면 내심 손해 보는 듯한, 억울한 감정을 느낀다. 우리는 어린 시절 '착한 사람 되어라' 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 곧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과 동의어라는 것을, 어른들은 미리 가르쳐주지 않았다.

전인권의 《남자의 탄생》은 '착하게' 길러지는 한국 남자들의 일상적 도덕의식의 뿌리를 파헤치는 책이다. 정치학자 전인권은 자기를 배려할 줄 모르고 가족·학교·군대·직장의 역할 모델에 가려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는 한국적 남자의 성장과정을 보여준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 라는 화두에 가려,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를 묻는 법을 잃어버린 한국 남자들의 보편적 성장과정을 그는 스스로의 연대기를 통해 속속들이 보여준다. 내밀한 자아를 곱씹을 여유를 처음부터 허락받지 못했기에, 정신적으로 매우 수동적이고 불건강한 상태가 바로 한국적 '착함' 의 숨은 얼굴이 아닐까. 착하다는 것은 만성적인 피해의식과 항상적인 욕망의 결핍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착해서 뭘 하나, 착하기만 해서 못 쓴다 등등 착함에 대한 클리셰는 착함에 대한 무의식적 거부감에 대한 완곡어법인 셈이다.

착한 사람의 진정한 일상적 의미를 재구성한다면 이렇게 도식화되지 않을까. 착한 사람 = 등쳐먹기 좋은 사람 = 남의 말에 잘 속는 사람 = 최소한의 자기 잇속

●이 글을 쓴 정여울은

'미디어 헌터' 로<공간>, <씨네21>, <출판저널>, <GQ> 등의 잡지에 책과 미디어에 대한 리뷰를 써왔다. 2006년 현재 한신대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아가씨, 대중문화의 숲에서 희망을 보다》 등이 있다

조차 챙기지 못하는 사람 = 자신의 손해나 불편을 묵묵히 견디는 사람 = 조직의 논리에 충성하는 사람 =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억누르고 타인이 원하는 것에 눈치를 보는 사람.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착한 사람, 특히 착한 남자라는 사회적 표본이 어떻게 사회학적·인류학적·정치학적으로 한국사회의 전형적 모델로 자리 잡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다. 그것은 곧 전인권 스스로가 고백하는 '나의 착함의 근원 밝히기' 작업이기도 하다. 그는 고백한다. 나는 착해짐으로써 진정한 나로부터 소외되었으며, 이 사회가 원하는 착한 사람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실패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

더 큰 문제는 이토록 착하고 온순하며 복종적으로 길들여지는 '한국적 남자'의 내면이 진정으로 착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그들은 사회나 조직 속에서는 착하지만, 자신의 내면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공간, 진정 자신의 착함을 가장 필요로 하는 가정에서는 착하지 않게 길러진다. 바로 여기서, 한국사회의 가부장제는 가족적·사회적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 개인의 욕망을 희생시키도록 작동되지만, 결과적으로는 타인 뿐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도 무지해진 나머지 반사회적·반가족적 인간을 양산시킨다는 역설이 탄생한다. 한국사회의 아버지는 가장의 권위를 얻고 집안의 대소사와 각종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정신적으로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다. 《남자의 탄생》은 이 과정을 때로는 마음의 해부도까지도 그려낼 듯한 엑스레이적 시선으로, 때로는 창공을 나는 비행기의 조감도적 시선으로 날날이 파헤친다.

이 책은 한국 남성의 표준적 성격이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분석하는 책을 넘어 모성의 탄생, 부성의 탄생, 그 아들과 딸의 탄생과정을 돌아보게 하는 책이다. 한 남자가 어른이 되기 위해 거치는 모든 통과의례는 일상과 전통의 이름으로 각인되지만, 실상 이 진부한 일상성의 메커니즘이야말로 권위와 신비의 커튼 뒤에 숨어 있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해 일상의 상투성이 다채로운 신비로 물드는 순간을 체험하게 된다. 우리는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은 무엇인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수없이 질문하지만, 나의 성격을 구성하는 일상적 조건에 대한 물음은 거의 던지지 않는다. 그 하찮은 일상이 하나하나 정신의 세포가 되어 이토록 복잡한 나를 구성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은 아프지만 통쾌하다.

이 책의 건강한 도발성은 내용보다는 형식에서 우러나온다. 저자는 끊임없이 자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이기적인 '동굴 속 황제'의 본성을 숨길

수 없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이 책의 형식 자체가 그가 '동굴 속 황제'의 권위로부터 이미 탈주했음을 증명하는 것 같다. 한국남자가 만천하에 자신의 '실패한 성장과정'을 까발린다는 것,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성장과정의 부정적인 측면과 은밀한 작동원리를 날날이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실패를 해부하여 벌건 대낮에 그것도 책이라는 공적인 텍스트로 고백한다는 것, 게다가 자신의 부모를 속속들이 해부한다는 것은 이들 세대에게는 '금지된 장난'이었을 것이다. 나는 《남자의 탄생》을 통해 가장 내밀한 자전적 기록이 가장 공적인 정치적 탐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본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성숙한 어른의 충고보다는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다'는 솔직한 어른의 고백이 그리웠다. 성공한 어른은 널렸지만 정직한 어른은 흔치 않다. '나'에 대해 이야기하되 '나'를 넘어서는 책 또한 그렇게 많지 않다. '나'의 수직적 깊이를 파고들면서도 '나'를 둘러싼 수평적 연대의 확장을 동시에 꿈꾸게 하는 책, 내게 《남자의 탄생》은 그렇게 읽혔다. 치절한 고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쪽팔림'이 아니라 자신을 길들여왔던 모든 존재 조건으로부터의 '자유'임을, 그를 통해 배운다.

*p.s. 살아가면서 아주 가끔 유명인을 실제로 봤을 때 한 번도 제대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꼭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아주 멀리 있어야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곤 했다. 그런 사람들은 그저 TV화면이나 지면을 통해서만 보는 것이 더 좋을 것만 같았다. 동경하는 것은 멀리 있어야 제 맛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예외가 생겼다. 정은임과 전인권, 그들은 살면서 꼭 한 번은 향기로운 술잔을 앞에 놓고 한담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었다. 이별에는 두 가지가 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이별과 절대로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별. 해마다 8월이 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두 사람을 막막하게 기다려야 할 것 같다. 내 마음속에서는 아직 보내지 못한 사람들이기에,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정은임을 향한 동경보다도 전인권을 향한 동경이 내게는 더 아리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그의 아름다움을 뒤늦게 발견했기에. **박민준***